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8호 【루게 제24681호】 주제 103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원 의사들인 김정은, 리원철, 보건설 구강종합병원 의사 김혁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뜨거운 정을 기울이였다.

외국문출판사 번역원 김현철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조선혁명박물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당의 부름따라 대자연개조전투로 뛰어넘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달려나간 평양호예 로동자 박은별은 돌격대원으로 일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남산병원 의사 최영미는 대규모축산기지건설에 한몫할 열의가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어 돌격대원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대성지도교 양성생 리유철은 세포땅의 전변을 안아오는

데 이바지할 일념으로 들끓는 전투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도 잘하였다.

세포지구를 사회주의청춘대지로 전면시킴을 위한 투쟁에 함께 참가한 심정으로 개성시인민보안서 아케단위 인민보안원 리광철은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당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높이 받들고 문덕군공업관리소 소장 김성각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6년간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줌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족을 이룬 우리 사회의 미덕을 활짝 꽃피웠다.

김주군상업관리소 세기리상점 책임자 김진영은 여러해동안 군인의 특유영예군인들과 진정로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영웅가정들의 생활을 물심방면으로 도와주었으며 원군사업과 중요대선설치원에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감격속에서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을 따르는 인민단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경의를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2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4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결세위원들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켜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결세위원들께 삼가 인사드리었다.

그들은 회소의 천출위원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효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 존실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직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용차와 전동차, 배, 려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이 땅위에 거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년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4일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 황병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군들과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2차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의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자 주체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힘이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 돌파, 화력발전량 2배이상 장성

화력발전부문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

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오늘의 전력증산투쟁이자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명심한 능력있는 일군들이 각지 화력발전소를 맡고 내려가 현지에서 전력증산을 위한 화신적지사모와 생산지회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성적업일군들은 내각과 해당성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선철, 철관과 미루대치차, 감속기대치차를 비롯한 대보수용설비 자체들을 화력발전소들에 하루 빨리 보강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특히 성에서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주력세우기 위하여 주위의 힘을 넣고 그곳 전력생산자들의 로력투쟁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성의 책임일군들이 증산의 승결은 이 못 일터들을 수시로 찾아 지원사업에 앞장서는 가운데 성의 정부원들과 그 가족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성의 정부원들로 조직된 수시명의 돌격대원들이 기업소에 내려가 구내철길의 어느 한 구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치열한 전투

석탄하차 및 운반부문의 로동자들은 탄부들과 철도운수부문 로동계급의 현대적혁신으로 질 좋은 석탄이 팽방 들어오는 데 맞게 해당 설비들의 능력과 가동률을 부단히 높여 전력증산과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혁명군대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부단치는 난관을 파고파고 돌파하며 전력생산량을 부단히 끌어올리고있다.

화력발전량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뎌는 심장마다에 걸 수한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난시기에는 열흘이상 질러있던 방대한 전진보수작업을 불과 5일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속에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호소를 지켜낸 전력생산자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더 깊이 자각한 이곳 로동자들은 9월 중순에 들어

와 보이파와 발전기운영대수를 점차 늘여 지금 월초에 비하여 전력생산량을 2배이상 끌어올리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전진물방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전력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직장별, 교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치열하게 벌려 운영종의 모든 설비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순천화력발전소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내부에비를 동원하여 발전기운영대수를 늘이고 강철을 비롯한 자체들을 예견성있게 마련하여 증산투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있다.

결사판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대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9월 중순에 보이파들에 불을 지핀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증산투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력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수 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그리고 두들기 케드우에서 증산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 당이 제시한 화력발전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는데 크게 기여한 서부지구 탄광들의 탄부들과 철도운수부문의 수송전사들은 지금 앙양된 기세, 그 기백으로 더 높은 증산목표를 향하여 맹렬히 전진 또 전진하고있다.

그들의 투쟁성과에 고무된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화력발전부문의 생산자들은 가까운 시일안에 당이 제시한 2단계 전력생산목표를 절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고 전력증산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전력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을 과학기술로 힘있게 추동하자

실정에 맞는 발전기력자체계를 적극 도입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국가 과학원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꾼들이 더욱 분발하여 펼쳐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선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구소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과학연구성과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투를 잘 싸고 갔다.

일꾼들은 과학자들이 해당 단위들에 내려가 들끓는 현실에서 몸을 꼭 잡고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기동시켜 물러나가지도록 하고있다.

지난 시간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부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있는 대형발전기들의 러자체계를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훌륭히 현대화하여 나라의 전력생산상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과학자들은 순천화력발전소에 달려나가 지난 2월부터 3호, 4호발전기들의 러자체계현대화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

국가 과학원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

를 힘있게 벌여왔다.

발전기력자체계를 구성하는 러자조종설비는 발전기의 전압과 부하전력을 조종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명을 지닌 전력생산에서 필수적인 설비이다.

순천화력발전소 발전기들의 러자조종설비는 오래동안 리용되어 온 러자기들과 러자조절기들로 되어있었다. 러자체계를 현대화하는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매우 절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부창 화력발전소, 연구사들인 최광희, 박승민, 리승민, 리유철, 조철진동무들은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정상화와 전력계통안정화에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던 발전기력자체계의 불합리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여왔다.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발전 추세,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은 투자로써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발전기력자체계를 새롭게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비롯하여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갔다. 일꾼들이 확고히 믿고있던 성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는 발전기력자체계현대화의 결

과를 이룬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학적 해법을 기초한 완성된 실용적 완성이나 부분적 완성이나 아니라 현실에서 실질적인 손을 내는 전면적 완성이라는 확고한 관념과 믿음을 전지하였다.

그러하여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라도 불굴의 정신력과 높은 실력으로 순천화력발전소의 3호, 4호발전기력자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중전의 러자조종설비에 비하여 러자체계의 성능이 보다 높아서 조종이 편리하고, 특히 주파수변화에 따른 성능저하현상이 없게 되었고, 또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던 기계적고장이 없어서 그로 인한 경제손실을 막고 발전기 대량 많은 무효전력을 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하여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정상화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투쟁은 한계단을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현대화를 위한 투쟁과정에 귀중한 경험을 쌓고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세련된 과학자들은 맡고있는 대상과제들을 정 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데담 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청천강화력발전소의 발전기력자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투에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다.

순천화력발전소 발전기력자체계의 현대화에서 이룩된 성과는 당의 과학기술증진선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선봉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없이 펼쳐나선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순천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는 과정에 이룩한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들앞에 나선 과업은 의외의 방대하며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도 허다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전기연구소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전력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적극 추동하며 당과 인민의 기대에 걸맞고 실적으로 보답할 결사의 의지와 투지를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당의 의지를 결사관철할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전기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꾼들의 양양된 열의와 완강한 실천력은 전력생산부문의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역

합흥수리동력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기술성과의 앞장 열매들로 이어지고있다.

과학부창장 교수 박사 김충혁 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존미분란보이러를 미소중유화학미분란보이러를 개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완성한데 이어 이것을 부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도입하는 사업을 현지에서 힘있게 벌이고있다.

이들이 연구완성하여 새롭게 도입하는 미소중유화학미분란보이러는 중유버너와 확대연소실을 결합함으로써 버너안에서 중유에 의한 1차연소가 진행되고 확대연소실에서 석탄에 의한 2차연소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은 한해에만도 수많은 중유를 절약하면서도 전력생산을 늘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연구사업이다.

청천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교원, 연구사들도 시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원사 교수 박사 서병화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방수문부님이바다보강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보강판의 길이와 두께를 줄일 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 과제를 내놓았다. 또한 수천개의 배수공을 감소시켜 많은 세멘트를 절약하게 하였다.

장전강발전소에 달려나간 실장 채영철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도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들은 2호발전소의 혼류수

차터빈을 개조하여 효율을 5% 정도 올릴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고 현장일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또한 로동자들에게 보다 좋은 작업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연구활동을 박력있게 벌이고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현장의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개발하여 로동조건과 환경을 보다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1호발전소에서 버너안에서 중유에 의한 1차연소가 진행되고 확대연소실에서 석탄에 의한 2차연소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것은 한해에만도 수많은 중유를 절약하면서도 전력생산을 늘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연구사업이다.

청천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교원, 연구사들도 시공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갔다.

원사 교수 박사 서병화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은 방수문부님이바다보강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보강판의 길이와 두께를 줄일 수 있는 확고한 과학기술적 과제를 내놓았다. 또한 수천개의 배수공을 감소시켜 많은 세멘트를 절약하게 하였다.

장전강발전소에 달려나간 실장 채영철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도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들은 2호발전소의 혼류수

본사기자

과학적인 저수용적평가와 전력증산

국가 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저수지 물량이나 전력생산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력발전용저수지의 용적을 정확히 평가하고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은 물자원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전력 생산을 늘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최근년간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첨단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저수용적평가방법을 연구도입함으로써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저수지는 오랜 기간의 운영과정에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퇴적작용 등으로 점차 저수용적이 줄어들게 된다.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저수지의 바닥형에 대한 측량은 저수용적평가를 위한 기초로 될뿐 아니라 퇴적량과 퇴적 위치를 확정하여 합리적인 방지대책을 세움으로써 저수지를 보호하고 물관리를 과학화하는데서 큰 공로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저수지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바닥형측량을 진행해야 하는것이다.

주요 경로의 측심대, 측심줄, 수압측심기 등을 리용하던

중전의 전력적인 방법으로는 저수지바닥형에 대한 연속측량을 할수 없었음이나 이 한 대규모수력발전소의 저수지 전 수역에 대한 측량은 11명의 측량전문가들이 17일이 걸려야 하는 현실적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작업량이 방대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큰 저수지인 경우에는 적어도 5~10년에 한번씩 바닥형측량을 하여 형태학적 특성량을 다시 결정해야 하며 퇴적작용이 심하고 작은 저수지의 경우에는 2~3년에 한번씩 측량하여 그 매를정정함을 밝혀야 하는 현실적용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종전방법으로써는 실현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구환경정보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해결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실장 박사 부교수 최광수동무와 연구사 박사 부교수 한철훈동무를 비롯한 기상수문정보연구실과 전지지도연구실의 과학자들은 첨단기술인 3S기술(원격조사기술, 지리정보체계기술, 전지구위지정정보체계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저수지의 용적을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 값비싼 측지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쓰이는 위성 수신기와 음향측심기,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연속적인 물고기측정체계를 구성하고 요구되는 측정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측정방법을 확립하였다. 한편 원격조사기술, 지리정보체계기술에

기초하여 각이한 축척의 저수지 바닥형도를 작성하고 저수용적 평가를 하는것은 방법론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하여 간단한 설비와 몇명의 노력으로 저수지의 물리학적 측량과 용적평가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면서도 막대한 노력과 자금,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95%이상으로 높일수 있는 3S기술에 의한 첨단수준의 저수용적평가방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11명의 로력으로 17일이 걸려야 할수 있었다 하던 저수지의 용적평가를 단 20일만에 해내는 데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과학적인 저수용적평가결과를 전력생산과 물관리에 받아들여 이 발전소에서는 한해동안에 3 200만kWh의 전력을 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과학자들은 여러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기본수준으로 되는 10여개 저수지들의 바닥형측량과 저수용적, 퇴적량평가에 이 연구성과를 확대도입하였다.

그러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 한해 발전소에서라도 한해동안에 수천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게 할뿐 아니라 퇴적작용으로 인한 저수용적감소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워 저수지와 물자원을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는것을 자각한 용광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열풍로가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과 가스류속 측정기시킴과 강성국가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하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자료를 의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여 전기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화력발전소용 미분란보이러를 순환비등중보이러로 개조되고있다.

순환비등중보이러는 석탄을 미분하여 태우는 미분란보이러와는 달리 파쇄한 석탄을 열용량이 큰 보이러에 넣어 비등 상태에서 연소시켜 태우지 않고 날아나선 석탄알갱이를 다시 화실로 되돌려보내는 과정을 여러차례 반복시킴으로써 석탄을

화실안에 보다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완전히 연소시키는 보이러이다.

이것이 석탄미분공정이 필요없는것을 비롯하여 석탄의 전처리공정이 간단하고 저열량 물체 생성이 50%, 실적이 75%이상이나 되는 무연탄버려까지도 매우 높은 효율로 연소시켜 태울수 있을 뿐 아니라

순환비등중보이러로 개조되고있는 화력발전소의 미분란보이러

중유석탄을 대폭 줄일수 있는 실리가 큰 보이러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가스인 아류산가스를 높은 효율로 제거할수 있고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도 적다. 또한 연소세기가 매우 높고 화실저면면적이 작아 보이러에 대한 현대화가 매우 유리할뿐 아니라 보이러의 부하조절범위가 넓고 부하조절속도가 빠르며 연소된 석탄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본사기자

중앙전력설계연구소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중앙전력설계연구소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동지와 김덕훈내각부총리, 관계부부, 연구소일꾼들과 중앙위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설계가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오수용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창립 60돐을 맞는 연구소의 설계가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평남에서 전력공업부문에 거룩한 영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9월 24일에 연구소의 창립일로 정하여주시고 수력발전소와 변전소, 송전선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설계과제를 통째로 맡겨주시며 설계가들과 일꾼들이 일을 잘해나가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고 하신데 축하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대인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건설의 대면영기를 펼쳐나가는 당중앙은 연구소로 중요대상들의 전력설계를 작성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으며 연구소창립 60돐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연구소는 창립후 지난 60년간 변모발전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강력한 설계력량과 물질적 토대를 갖춘 나라의 권위있는 설계기관으로 강화발전되어 맡겨진 혁명무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연구소의 설계가들과 일꾼들이 당과 수평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고결한 도덕리심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

황해남도수산관리국의 일꾼들과 산하단위 근로자들이 해주어공장의 수직적공업과 비출작업장을 비롯한 생산건물들과 사무실, 문화전실 등을 일신하였다.

공사지휘부일꾼들이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든 공사자 설계와 공방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자체보장을 선행시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18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 도입

김책제철련립기업소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기업소적으로 180여건의 가치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출간생산에 도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들의 일꾼들은 기술혁신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는것을 자각한 용광로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열풍로가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과 가스류속 측정기시킴과 강성국가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하게

여구생산기지의 면모를 일신

황해남도수산관리국에서

혁신의 앞장에는 바늘직업장 개건을 맡은 부포바다양식사업소가 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줄기찬 공격전에 전력 준을 내어놓는 대상에 대한 긴박의자정기 지붕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와 함께 사업소의 로동자들은 건물주변에 잔디밭과 화단

을 조성하고 휴식터도 잘 꾸려놓았다.

수직적공업개건을 맡은 웅진바다양식사업소의 로동자들도 앞선 건설공사를 적극 받아들이고 선형공정을 앞세우면서 하루계획을 150%이상씩 넘쳐 수행하였다.

리원준비작업장개건과 울라리공사 등을 맡은 웅진해안수산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데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무역연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역

명산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의 삶

내 조국의 명산들마다에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있는 절들이 많다.
보현산의 보현사, 금강산의 표훈사, 칠보산의 개심사, 구월산의 월정사...
민족의 체로 빛을 뿌리는 귀중한 문화유산들은 우리의 문화유물보존정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참된 인간들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으로 하여 더욱 빛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 사업을 활하여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후세에 길이 빛내어 주어야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겨울 어느 날, 평양시의 교외를 떠나가는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있었다.

《아버지, 우린 어디로 이사 가요?》
《산 좋고 물 맑은 경치 좋은 곳으로 간다.》
아버지의 말이 좋아라 손뼉을 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소년의 눈앞에는 사슴이며 노루, 산토끼들이 뛰어나는 동화세계가 보이던 것이다.
당시 길병호동무의 나이는 7살, 평양시의 어느 한 공장에서 일하던 징정로인 아버지께서 가정과 함께 정든 수도를 떠나 길은 산중의 절로 자신하여 들어가는 지미치 앞수 없었던 철없는 시절이었다.
구월산의 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생활은 마누나 말한다.

구월산 월정사 관리원 길병호동무의 가정

음악에 그러하던 재미나는 동화 세계가 아니었다. 밤이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 천연수림으로 둘러막힌 절에 걸터앉아 있었다.
길병호동무는 산속에서의 생활에 정을 붙이지 못하였다. 세월이 흘러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월정사를 떠나 어느 한 친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안구시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그가 휴가를 받고 집으로 왔을 때였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복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전쟁시기에 생김 병으로 하여 심하게 앓으면서도 일손을 넘겨줄 사람이 없었어 안타까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가슴에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날 저녁 아버지를 전후 한복한복의 자식이 커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놈들의 폭력에 불타버린 민족문화유산들을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하고 그 보존관리에 언제나 커다란 힘을 기울여온 우리 당의 문화유물보존정책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었다.
월정사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 목탄이 띄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의 언덕 순경된 모습을 자랑하는 목탄이 있었다. 어릴 때 생각이 났다. 월정사에 온 후 아버지는 주변에 목탄을 심으며 말하였다.
《목화가 없으면 무슨 명산이고, 우리 한번 잘 가꾸어보지

꾸나.》...
《아버지의 정성속에 목탄이 퍼지고 갔다. 그런데 그 목탄을 이어서 가갈 사람이 없단 말인가.》
길병호동무는 당의 믿음을 잊고 고상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월정사로 오게 되었다. 그가 월정사에서 관리생활을 시작하지 않지 않았어 고난의 시기가 닥쳐왔다.
그런 때에 수십년 세월 절을 관리해오던 아버지의 영이 더욱 약화되었다.
림초를 앞두고 그는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월정사를 부락한다. 그러구 목탄을 잘 가꾸어라.》
그는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었다.
그러나 생소간직이 많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월정사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력사학과 건축학, 미술은 물론 재료를 배워, 기상학을 비롯하여 절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탐독하였다.
그리고 월정사 주변에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었다.
월정사 근처에는 그의 가정의 정자관이었다. 그의 가정의 정자관을 자그마한 터마이 있었다.
처음 터마이의 절반땅에서는 곡식이 자랐고 나머지 절반땅은 나무모가 차지하였다.
그마저 해마다 터마에서 거두

던적이 있었다.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을 때 그는 《나를 치료해 주어서는 안되니, 나를 치료해 주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왔다.
월정사로 돌아온 그는 목탄앞에 섰다. 흰눈이 끼고있고 온갖 인상을 안겨주는 꽃...
국화가 없으면 무슨 명산이겠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의미가 깨달아졌다. 목탄꽃처럼 깨끗하고 역설 광성과의 리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려는 아버지의 당부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구월산도 명산으로 대를 이어 빛난다는 뜻이었다.
그는 생활을 나라의 문화유물 관리에 바치는 아버지처럼 월정사 관리에 모든 것을 바쳐나갔다.

당에서는 그를 선군혁명청년근대회와 전국지식인대회를 비롯한 수많은 대회장상에 불러주었다.
길병호동무는 주제 101(2012)년 5월 국토관리총동원운동원성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몸은 비록 깊은 산중에 있어도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이런 고결한 삶을 우리 당의 따사로운 빛은 비집없이 찾아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길병호동무와 그의 가정은 대를 이어 받아오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아름다운 목탄꽃처럼 생의 하루하루를 빛내고 있다.
신 현 규

청 류 관 에 서

좋은 미치 물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늘 보게 되는 우리 청류관의 풍경이지만 요즘은 평양평면과 전경을 비롯하여 민족음악의 맛이 한결 더 좋았다고 하면 이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치 그 수요를 보강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말을 모르고서야 어쩌이 세상 천하제일이 진미를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적 전통을 옮겨 계승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얼마전 우리가 평양 평면을 비롯한 민족음악봉사로 소문난 청류관을 찾았을 때였다.
8각정문을 지나 기념관관을 들어서자 평양의 이름난 민족음악대중봉사가가 파란 다룬기 다스리나 하는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황홀한 국악의 내부를 방불케 하는 소리...

오늘도 길병호동무와 그의 가정은 대를 이어 받아오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아름다운 목탄꽃처럼 생의 하루하루를 빛내고 있다.
신 현 규

들에게 이곳을 찾은 소감을 묻자 그들은 한결같이 매일처럼 오고싶은 곳이 바로 청류관이라고, 청류관은 평양평면보다 좋지만 상상에 소문난 것까지 민족음악을 다 맛볼수 있어 더욱 좋다고 너도나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민족음악봉사로 자랑 높은 청류관에 펼쳐진 풍경은 우리 당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주체성과 민족성이 날로 더욱 꽃피어가고 있는 행복과 기쁨으로 비찬 사회주의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었다.

지금 청류관에서는 민족로리 발전을 위해 쌓인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여러가지 민족로리봉사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에게 이곳 봉사자들은 두통한 감성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처럼 훌륭한 인민의 봉사자격을 마련해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와 함께 이런 글도 띄여져 있었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도 넓지만 우리의 맛, 우리의 향기가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며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나날이 더해만 가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였다.
정경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청류관은 인민에 대한 절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깊이 깊이 전하며 인민의 사랑받는 봉사자로서 자랑될 것이다.
본사기자

꽃피는 우리 생활과 민족문

대동강구역종합양복점 문흥조선옷점에서
고상한 모습들에서 눈길을 매시 못하는 우리에게 장용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렇게 한복 또 한복의 손님을 우리가 지은 조선옷으로 단장시켜 내세우자는 조선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우리의 멋진 고지향입니다.》
조선옷을 만들어가는 궁지! 그 말이 우리의 가슴속에 쿵와박했다. 민족의 전통과 넓은 어린 조선옷을 이어가는 이들의 궁지야말로 남다른 애국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새겨들었다.
바로 그런 남다른 궁지를 안고 자기 직업에 사랑받는 장용화동무에게 그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거리로 지나가는 녀성의 저고리동정이 반듯하지 못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그 녀성을 데리고 조선옷집으로 와서 동정을 새로 달아 주었다. 장용화동무는 조선옷의 매력은 목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사실 시골에서 지어졌던 동정에 있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동정다는 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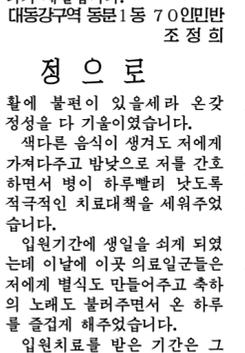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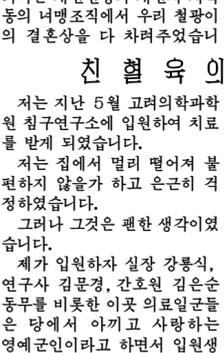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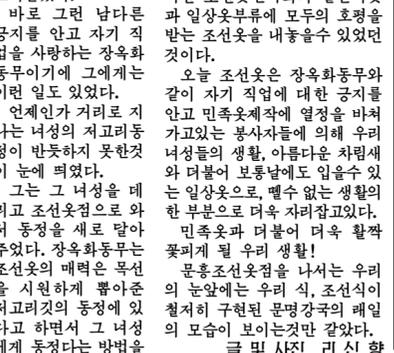
한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날 또 한복의 녀성이 아름다운 조수도 차림으로 주인의 거리를 밝게 해주었으리라. 이런 일은 장용화동무가 조선옷점의 재봉틀에 있어서 재수로운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옷을 입고 나선 녀성들의 웃음꽃을 제 차림처럼 살피는 것은 직업적인 관습이기 전에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었었다.
이런 것들이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에서 선린대상, 선민대상인 요구를 구현할 때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놓고 자기자구 깊이 학습하면서 조선옷제작에서도 그 요구를 구현하여 이번 조선옷전시회 결핵신옷과 일상생활용 모두의 조형을 받는 조선옷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조선옷은 장용화동무와 같이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를 안고 민족문예작업에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봉사자들에 의해 우리 녀성들의 생활, 아름다운 자림과 더불어 보탬날에도 입출수 있는 일상생활용, 맨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더욱 자리잡고있다.
민족문과 더불어 더욱 활짝 꽃피게 될 우리 생활!
문흥조선옷점을 나서서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 조선옷이 펼쳐져 구현된 문명강국의 레벨의 모습이 보이는데는 거짓말이었다.
글 및 사진 리 신 현

대 가정의 료리, 미덕의 향기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조카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개천에 갔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조카 첩왕이는 특유영예군인인데 개천관점에서 얻은 자기 외삼촌집에서 살고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결혼식준비방어 어떻게 하였는지 격이 지 갖추었습니다.
히나 저의 이 격정은 공연한 것이었습니다. 첩왕이 외삼촌이 다니는 개천관방과 개천시 자작동의 녀병조직에서 우리 첩왕이의 결혼상을 다 차려주었습니다.
대동강구역 동원1동 70인민반 조정희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첫 사랑을 갖 수 있게 집도 덩실하게 새로 지어주고 살림살이도구들도 일 식으로 갖추어주었습니다.
특유영예군인이 부모가 없지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응당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첩왕이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관방군들과 자작동 녀병조직들의 모습에서 저는 남이 없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화목하게 사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대동강구역 동원1동 70인민반 조정희

나날이였습니다.
송원규 93인민반 김철병
제가 이렇게 편을 든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류원철통동무를 비롯한 대동강구역의 일군들은 반일애국렬사유자녀들의 생활을 잘 돌보는것은 어머니당의 승화한 뜻이라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건강과 생활의 구성구축을 세심히 보살피어주었다.
국가적명절들은 물론 시간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있어 온 사회가 하나의 혁명적대기장인 줄을 지어주는 우리는 금지없이 자랑할수 있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입니다.》
백은 불어일것이라는 선구가 있다. 백은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다.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통신의 홈페이지에는 조국을 방망했던 한 해외동포의 글이 실렸다.
그는 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그 생활력에 대하여, 령도자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에 대하여 자기 직접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피력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조국의 모든 사람들을 어머니님정도로 따뜻이 품어주는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람은 돌부처가 아닌 이상 사업과 생활과정에서 과오를 범할수도 있고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지을수도 있다. 실사 엄중한 파로나 죄를 지은 사람이요도 하여도 그에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향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향상을 키워주는 여야 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을 이끌어주어야

판이한 두 현실, 락원과 지옥

한다. 꺾음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본의나기 나래알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 희망과 신심에 넘쳐 행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들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있다.
하기에 나는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신이 구현된 공화국의 참다운 면모를 목격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그 중중 세력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중상모략책동의 기만성을 다스린 번개같이 되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며 인민대중을 령도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존재로 내세워주고 자의의 노에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수 있게 하여주는 진보적인 리상형의 공화국에 대해 《인권부재》나 뭐니 하고 떠드는 자들처럼 무식한자들은 없을 것이다.
... 필자는 글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경계는 결벽이레로 단두박질하고있지만 핵보유국인 공화국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선언하고 강성국가로 향해

《성행하는 <문지마벌>》, 《부도살해후 불지른 페를아들》 등 틀기에도 소름끼치는 제목의 범죄판권기사들이 지면엔 꼭 채우고있다.

《성행하는 <문지마벌>》, 《부도살해후 불지른 페를아들》 등 틀기에도 소름끼치는 제목의 범죄판권기사들이 지면엔 꼭 채우고있다.
신시어 중세기의 노예사회를 방불케 하는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사실들이 령이 밝혀져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얼마전 장재자, 도숙자 등 사회의 약자들이 소금밭에 팔려가 12년동안이나 노예생활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들은 직업 인건사회를 지향하려고 숙이 자기들 크게 소금밭업주에게 팔려갔고 단 한한번의 일도 받지 못한채 각목, 쇠못등에 맞아가면서 혹사당했다.
이런 죽음의 일러를 기업이 이런 죽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일했다. 그들이 생명을 잃고 일한 대가는 그야말로 노예들이 먹고 자는 숙식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죽음의 일러를 기업이 이런 죽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일했다. 그들이 생명을 잃고 일한 대가는 그야말로 노예들이 먹고 자는 숙식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죽음의 일러를 기업이 이런 죽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일했다. 그들이 생명을 잃고 일한 대가는 그야말로 노예들이 먹고 자는 숙식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죽음의 일러를 기업이 이런 죽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일했다. 그들이 생명을 잃고 일한 대가는 그야말로 노예들이 먹고 자는 숙식비에 지나지 않았다.

노예의 일러가 드러났다. 그들의 거처는 난방은커녕 쥐들이 들락거리는 음습한 창고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다.

가혹한 착취에도 군소리 한번 못하며 죽을때도 가까이 간 노동환경에서도 저항할 용기가 없는 사회,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빼앗긴 사회가 바로 노예사회이다.
자본에 짓눌린 이 사회는 노예사회가 가까이 가고있다. 노예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에 대한 체제와 조정의 역할을 국가가 기필코 해야 나간다. 이 사회에서 힘없는 약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며 결국 강자들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호상 리익이 되고 풍요로운 인건사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의지도 없는 이런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리유가 어디 있는가.
...
이것이 바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의 불모지인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의 진면모이다.
황금만능주의와 인간중중 사상이 깊숙이 뿌리박은 남조선 사회의 필연적산물인 이러한 악페를 없애는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것이다.
달그들도 하늘땅같은 차이를 가진 두 사회체제의 천이를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이고 자본주의는 지옥이라는것을, 본사기자 리 명 남



침략자 미제가 또다시 뽀뽀하면 씨종자도 없이 영영 쓸어버릴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중요와 복수로 피를 끓이도록

선천교원대학에서 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천되었던 대학생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닌 교육자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에게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강의와 계급교양관람, 체험자와의 상봉모임을 준비하게 조직하고있다.
박창현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미세와 남조선교원들이 발발적으로 벌리는 핵전쟁연습행동의 침략적인 반동적인 본질과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수사와 사실들을 들어가며 깊숙하게 강의하여 대학생들도 모두가 능률과 만사 총대 결산하고야말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굳게 다져두고 있다.
본사기자 김 해 병

